# 매자마을 마을회관 완공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완료··· 건강증진실 · 화장실 등 갖춰

장수군이 계북면 임평리에 위치한 매자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매자 희망마을 만 들기 시업'이 12일 완공됐다.

매자마을은 내림마을에 속하는 주민 수 25명의 작은 자연마을로 기존 마 을회관은 1933년 건축, 화장실도 없이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이 었지만, 지난해 5월 전라북도에서 주 과하는 '2016년 희망마을 만들기 공 모사업'에 선정돼 1억원(도비 5천, 군 비 5천)을 지원받아 마을회관을 개축

완공된 마을회관은 연면적 84.90㎡ 규모로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건강 증진실, 다용도실, 화장실을 갖춰 주 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과 연계, 마을회관 마당에 야외운동기구 3종을 설치해 마을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개축된 매자마을 마을회관

매자마을 송임동 반장 등 주민들은 "기존 회관이 좁고 내부화장실이 없 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마 을회관이 개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 신 군청과 도청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편안한 휴식과 주민화 합의 장소로 활용하고 관리하겠다"고 /장수=고판호 기자 말했다.

### '야영장 친환경 조리법 경연대회' 29일 개최

#### 덕유대자연학습장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 무소는 최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을 즐기려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야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 5회 야영장 친환경 조리 법 경연대회'를 이달 29일 덕유대자 연학습장(제7야영장)에서 개최한다.

경연대회의 심사기준은 단순히 맛과 모양 뿐 아니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 는 음식 쓰레기의 발생되는 남은 음 식물의 활용도 등이 중요한 기준이

경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야영객 은 야영일정과 경연대회 일정이 맞는 지 확인 후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063-322-3174)에 신청 가능하며, 참가 지는 경영대회에 필요한 집기와 재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경연대회 수상자(최우수 1명, 우수 2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수상 음식 및 레시피는 책 자로 만들어져 전국 국립공원의 야영 장에 배포되어 모든 야영객들에게 전 파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이희숙 행정

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등 9건의 안건과, 김용문 산업건

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장수군 생

활민원 기동처리팀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한규태 의원

이 발의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모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

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이희숙 의원

이 발의한 「장수군 생활민원 기동처

리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 무주군,무더위쉼터 운영상황점검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 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무더위 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 건강 챙기기 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수가 직접 관내 무더위 쉼터를 돌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동행 해 안전점검과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울러,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팀이 별도로 마을을 돌며 무더 위 쉼터 이용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대상자를 상대로 건강검진을 /무주=전문선 기자 병행하고 있다.

#### 무진장소방서, 용담댐 변사체 인양

무진장소방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17 분경 용담댐 수문 여수로 부근에 떠오 른 변사체를 인양했다.

이날 지나가던 행인이 용담호 수면에 떠오른 사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신 고한 건으로 현장으로 출동한 무진장소 방서 119구조대는 용담댐 수문부근에 소형 선박을 이용 변사체를 안전하게 인양했다.

변사체는 김제시 금구면 오모씨(80 남)로 밝혀졌는데 오씨는 치매와 우울 증 앓고 있었는데 지난 7일에 가출, 가 족들은 8일에 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것 /진안=우태만 기자 으로 알려졌다.

#### 무주군 농업인학습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장학습

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와 생활개선무 주군연합회, 무주군 4-H본부 등 관내 농 업인학습단체 임원 90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법 모색을 위해 현장학습에

이번 교육은 경남 시천과 통영, 거제 일원에서 진행됐다. 11일에는 남일대리 조트에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한승갑 박사가 진행하는 '기후변화대응 토양관리 강좌, 온난화대응연구소 성기 철 박사가 진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작 물재배' 강좌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12일에는 통영시 망고재배 농장을 방 문해 열대와 아열대환경에서 재배되는 망고의 특성과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거제시농업기술센터를 견학 하는 시간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의회,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

의결했다.

#### 12~18일 임시회

장수군의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 의 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된다.

유기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초 계

획된 주요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잘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 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

시고, 업무보고에 임하는 공직자분들 도 소신과, 책임 있는 보고로 군정을 위해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점검과 각종 수리시설 점검, 하계방역 철저

### 진안 마이골작은영화관, 누적 관람객 10만명 돌파

진안군은 12일 마이골작은영화관 개 관 2년만인 지난 8일 총 누적 관람객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문을 연 마이골작은영화 관은 대도시 영화관과 동일하게 개봉 영화를 동시 상영하고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까지 10만명이 찾아와 주민 1인당 평균 3.8회를 관람한 것으로 분

마이골작은영화관은 10만번째 관객

에게 10만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을 9 만9999번째와 10만 1번째 관람객에게

> 군 관계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일 1,000원 할인, 작은영화관 기획전, 10만명 돌파 이벤트와 더불어 앞으로 도 각종 문화이벤트 접목을 통해 관 람객 유치와 군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5만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을 증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 '씨 없는 곶감마을' 로 피서 오세요

#### 정천면 학동마을 '휴양관' 피서객 맞이 한창… 마을축제 8월 5일 개최

씨 없는 곶감마을로 유명한 진안 군 정천면 학동마을에서 운영하는 '씨 없는 곶감마을 휴양관'이 피서 객 맞이에 한창이다.

용담호 최상류지역인 학동마을은 씨 없는 곶감을 생산하는 마을로 유명하며 깊은 계곡과 운장산, 자 연휴양립이 위치하고 있다. 또, 인 근 구봉산과 용담댐 등 주변경관이 매우 수려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다.

2007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합심 하여 운영 중인 씨 없는 곶감마을 휴양관은 운장산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계곡물과 마을 숲 등 수러한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져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돼 설치된 시

올해에도 자연치유 힐링을 원하 는 피서객의 휴식을 위하여 휴양관 9개동과 물놀이장 1개소, 샤워장, 객실 등을 작년에 새로이 정비해 이용객 편익시설을 보완했다. 또, 안전시설을 갖춰 7월 중순부터는 본격 피서객 방문에 대비하고 있

학동마을 '씨 없는 곶감마을 휴양관' 물놀이장

특히 다년간의 마을축제를 추진 해왔던 마을로서 올해도 학동마을 출항민과 피서객,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축제를 8월 5일 개최할 예정이다. 마을축제에는 다슬기잡 기와 부침개 체험, 물속 보물찾기, 갑자삼굿, 맨손 깔딱메기 잡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산나물을 건조한 건나물을 휴양관 에서 체험판매하고 있다.

임진숙 정천면장은 "보다 발전된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학동마을 주 민들의 화합과 단결하는 모습이 감 동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 다"며, "다른 마을로도 확산되어 주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살기 좋 은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 /진안=우태만 기자 했다.

